

서울 주요 대학들과 협력체계 구축

전북대, 고려대·서울시립대 찾아 대학 간 협력 방안 모색 양오봉 총장, 고려대 화공생명공학과 60주년 기념식서 특강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고려대학교 및 서울시립대 등 서울지역 주요 대학들과 교류 확대와 공고한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섰다.

전북대 양오봉 총장은 지난 23일 오후 고려대학교를 방문해 김동원 총장을 만났고, 이어 서울시립대를 찾아 원용길 총장을 만나 대학 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전북대는 지난 2021년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에너지신산업 분야 혁신공유대학에 선정돼 주관대학인 고려대 등과 공동 강의 제작과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첨단 분야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서고 있다. 또한 서울시립대와의 2020년 협약을 체결하고 학생 교류와 취업 지원 네트워크 구축, 산학협력 정보 공유 등에서 협력하고 있다.

이날 만남은 그간의 이어진 대학 간 협력 관계를 보다 공고히 하고, 확대하기 위해 폭넓은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양 총장은 모교인 고려대 화공생명공학과 6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연사로 초청돼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양 총장 이 자리에서 대학 시절 일화와 은사님들, 그리고 학창시절을 거쳐 총장이 되기까지의 스토리 등을 공유하고, 전북대 총장으로서 담대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글로벌대학으로 나아가고 있는 전북대의 모습 등을 전하며 대학 동문들과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

양 총장은 "그간 긴밀하게 교류 해 오고 있는 고려대와 서울시립대 총장님과 대학이 나아가야 할 길, 대학 간 공유와 연대의 힘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대학 간의 협력을 더욱 고도화시켜 대학발전이 지역과 국가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고려대학교 및 서울시립대 등 서울지역 주요 대학들과 교류 확대와 공고한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섰다.

전북대 양오봉 총장은 지난 23일 오후 고려대학교를 방문해 김동원 총장을 만났고, 이어 서울시립대를 찾아 원용길 총장을 만나 대학 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전북대는 지난 2021년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에너지신산업 분야 혁신공유대학에 선정돼 주관대학인 고려대 등과 공동 강의 제작과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첨단 분야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서고 있다. 또한 서울시립대와의 2020년 협약을 체결하고 학생 교류와 취업 지원 네트워크 구축, 산학협력 정보 공유 등에서 협력하고 있다.

이날 만남은 그간의 이어진 대학 간 협력 관계를 보다 공고히 하고, 확대하기 위해 폭넓은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양 총장은 모교인 고려대 화공생명공학과 6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연사로 초청돼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양 총장 이 자리에서 대학 시절 일화와 은사님들, 그리고 학창시절을 거쳐 총장이 되기까지의 스토리 등을 공유하고, 전북대 총장으로서 담대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글로벌대학으로 나아가고 있는 전북대의 모습 등을 전하며 대학 동문들과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

양 총장은 "그간 긴밀하게 교류 해 오고 있는 고려대와 서울시립대 총장님과 대학이 나아가야 할 길, 대학 간 공유와 연대의 힘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대학 간의 협력을 더욱 고도화시켜 대학발전이 지역과 국가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지난 23일 고려대학교를 찾은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사진 왼쪽)이 김동원 고려대학교 총장과 대학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내 학교 담장 허물어 어린이 승하차존 설치

도교육청, 주정차금지 특례방식 2개교 등 10월까지

전북도교육청(서거석 교육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존(Drop Zone)을 조성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날 도교육청은 따르면 올해 초 학교의 신청을 받아 지자체 및 경찰서와 함께 현지점검 후 어린이 승하차존 설치 학교 8곳을 선정했다.

주정차금지 특례방식 2개교, 학교내 어린이 승하차존 6개교로, 오는 10월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어린이 승하차존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허용한다.

다만 현재 어린이 승하차존은 편도 2차 이상 도로 위에 지정하고 있으나

학교 주변은 편도 2차 미만이 많고 도로 위에 설치하는 경우 후행 차량의 흐름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선정된 사례가 많지 않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학교 담장을 허물어 어린이 승하차존을 조성하기로 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승하차존(Drop Zone)을 설치해 학부모 및 운전자들에게 안정적인 교통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우리 교육청은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은성기자



전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은 '2주기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두 가지 유형에 모두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5일 전북도와 전주대학교가 고등평생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 모습.

도교육청, 본청 직원 대상 교육정책기획역량 강화연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21~23일 3일간 전주세계평화의전당에서 2023년 교육정책기획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도교육청 소속 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올해는 본청 직원들의 정책기획 및 보고서 작성 역량을 높이고, 협업문화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뒀다.

먼저 서울시교육청 김경선 사무관이 강사로 나서 '교육정책기획 역량 강화'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어 KST 방진섭 행정처장이 '문화가 경쟁력이다'를 주제로 글로벌 선도 대학으로 서기 위한 KIST의 변화와 혁신 사례들을 소개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육정책을 기획하고 보고서로 작성하는 것은 전북교육의 정책 수립과 집행 내실화에 꼭 필요한 역량"이라면서 "이번 연수를 계기로 지난 1년여 간 추진했던 업무들의 효율성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추진할 정책들을 새롭게 기획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해외 연구소와 탄소중립 혁신인재 키운다

전북대, '해외연계 에너지 신산업글로벌 사업' 선정 지구물리탐사 등 인재 양성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원장)이 주관하는 2023년도 1차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인 '에너지인력양성 해외연계 에너지신산업글로벌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석·박사급 우수 인력을 선발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6개월 이상의 해외 장기파견을 지원해 탄소중립 시대를 이끌어 갈 혁신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전북대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내년까지 3억8,000만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요구되는 이산화탄소 저감, 유가스전 개발 등의 지난 안 전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지구물리탐사와 모니터링 전문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위해 전북대는 미국 MIT-로렌스버클리연구소와 캐나다 켈러리대학교, 호주 커탄대학교, 노르웨이 과학기술대학 노르웨이 지반공학연구소, 사우디아라비아 킹 압둘라과학기술대학교 등과 연계해



전북대학교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주관하는 2023년도 1차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인 '에너지인력양성 해외연계 에너지신산업글로벌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진 왼쪽부터 석사과정 조현욱·석사과정 박세은·연구책임자 오주원·석사과정 지형근·석사과정 박진영·학석통합과정 정윤씨)

다섯 가지 글로벌 프로젝트를 발굴했다.

이 프로젝트에서 전북대는 5명의 연구자를 해외에 파견해 7~9개월 동안 국내 기술의 자립화를 위해 해외 실증 부지를 대상으로 지구물리탐사와 모니터링 기술 실증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연구책임자인 오주원 교수는 "토목/환경/지연·에너지공

학부(지원·에너지공학)와 글로벌자원순환 환경교육연구단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 K-CCUS 추진단의 지원을 받아 지난해 7월부터 온실가스감축 혁신인재양성사업을 수행해 왔다"며 "지구물리탐사 분야 기술 선도국과의 이번 공동연구가 우리나라가 지난 안전관리 강국으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예술융합인재 교육프로그램 운영

교육생 내일까지 모집 도내 중·고교생 대상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 산학협력단 리더십휴먼케어아카데미(센터장 엄희정)에서 2023 예술융합인재 교육프로그램 교육생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도내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사회통합전형 50% 우선 기준으로 50명을 선발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6월 27일까지 리더십휴먼케어아카데미 홈페이지를 통해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

선발된 학생들은 7월부터 12월까지 주말 간 교육을 받으며 심리·체형테스트, 국제여행캠프, 전시, 공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교육 과정은 소리와 움직임을 기반으로 리드믹, 감각 움직임, 표현예술, 자연치유, 진로·인성 등으로 운영된다.

특히, 독일 드레스덴 헬레리우 리드믹 협회의 협력으로 독일 오스트리아, 중국 대학의 교수진이 참여해 글로벌 문화를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교육 과정을 총괄하는 전북대 협회 정 교수와 한국건축공학과 남경경 교수, 바이오메디컬공학부 권대규 교수, 심리학과 한현석 교수 및 분야 전문 강사진들도 학생들의 멘토 역할을 맡았다. /정은성 기자

'부설교육, 교육과정으로 깊이·품격 더하다'

전국 부설초 연합 교육과정 학술 연구 토론회 개최

전국 교육대학교와 교원대학교 소속 16개 부설초등학교 전 교원 450여 명이 참여하는 2023학년도 전국부설초등학교 연합 교육과정 학술 연구 토론회가 지난 23일 전주교육대학교와 전주부설초등학교에서 열렸다.

이날 정선영 연구부장(전주부설초)은 전주교육대학교 100주년을 기념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선도적인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 초등교육의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자 이번 행사의 기획 의도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부설교육, 교육과정으로 깊이와 품격을 더하는 주제로 교사교육과정 연구 의의와 개발사례, 마을 기반 학교 재량 과목, 개념기반 교육과정과 수업설계 방안, 문화다양성과 교육과정 개발과 실행, 역량기반 학교교과목 개발 원리 등 5개 분과로 나눠 진행됐다.



전국 교육대학교와 교원대학교 소속 16개 부설초등학교 전 교원 450여 명이 참여하는 2023학년도 전국부설초등학교 연합 교육과정 학술 연구 토론회가 지난 23일 전주교육대학교와 전주부설초등학교에서 열렸다.

우리나라 초등교육을 선도하고 있는 전국의 부설초 교원들이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교육 대토론회를 갖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특히 2022 개정 교육과

정에 신설되는 '학교 자율시간' 운영과 관련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정은성 기자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 2개 유형 선정

전주대, 고도화형·광역지자체형 등... 20억원 지원 확보

전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은 '2주기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두 가지 유형에 모두 선정됐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은 재직자와 성인 학습자 친화적 대학 교육 제공을 목표로 시작됐으며, 지난 2019년 전라북도 4년제 대학 중 전주대가 유일하게 선정된 바 있다.

이번 공모에서는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고도화형'과 '광역형' 두 가지 유형에 선정돼 향후 교육부로부터 연 20억 원의 지원을 받아 전북권역 내 평생교육 거점대학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미래융합대학은 사회수요에 대응해 미래비핵부(기술경영전공, 문화콘텐츠전공), 농식품경영학과, 창업

경영금융학과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로컬벤처학부(일링레저전공, 로컬비즈니스전공), 반려동물학과, 친환경자동차학과 등을 추가 개설해 신입생 선발에 나설 예정이다.

신입생 선발은 일반 대입 모집 시기와 같이 수시와 정시로 이뤄지며, 수능점수는 반영되지 않는다. 고교 졸업 자격을 지닌 직장인, 소상공인, 농어민 등은 모두 지원 가능하다. 또한 30세 이상이었고 고등학교 졸업 자격이 있다면 아무런 조건 없이 지원할 수 있다.

박진배 총장은 "사회 수요에 맞는 재교육 등으로 재학생들의 인생 전환점 마련에 이바지하겠다"며 "학습환경 보장을 위해 온라인 강의를 적극 활용해 출석 의무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은성 기자

ICC간 산업분야 인력양성 공동 프로그램 개발

비전대, 충북보건과학대와 협약

전주비전대학교 3단계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단(LINC 3.0)은 최근 충북보건과학대학교 LINC 3.0 사업단과 ICC간 공유·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본교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전주비전대학교 LINC 3.0 사업단 최승훈 사업단장과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조윤기 사업단장 외 각 대학의 사업담당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두 대학은 △ICC 산업분야 및 신산업 분야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공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ICC 산업분야 맞춤형 재직자 대상 교육프로그램 공동 추진 △ICC 협력기업의 생산성 제고 등을 위한 애로기술지도 공동 플랫폼 제공 △협약대학과 협력기업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지역사회 문제해결 등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체결 후 각 대학의 LINC 3.0 사업담당자들은 'U 데이(Cooperative You and I DAY)'를 열어 사업 운영 과정에서의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등 실무진 간의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조윤기 LINC 3.0 사업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각 대학이 보유한 인적, 물적자원을 적극 활용한 실질적인 공



유·협업 성과를 창출해 지역사회 및 산업체가 요구하는 산학협력 기반조성과 전문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최승훈 LINC 3.0 사업단장은 "바이오헬스, 휴먼서비스, 스마트모빌리티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해 내고 있는 충북보건과학대학과의 공동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동참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답했다. /장은성 기자